

책으로 되살리는 놀이문화의 옛 전통

공동체적 삶 지향하는 전통놀이 소개...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기도

요즘 아이들은 놀이를 잊고 산다. 아이들은 돈이 생겨야 놀 수 있고 장난감이 있어야 놀 수 있다. 기껏 텔레비전을 보거나 몇푼의 돈을 쥐고 전자오락실에서 버턴을 눌러대는 것이다. 성인의 세계 또한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성인으로서 공동체적인 놀이를 즐기거나 서너명이 둘러앉아 놀음에 가까운 잡기를 즐기는 것이 고작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은 돈을 주고 스포츠센타를 찾거나 술집을 찾는 것이다. 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방층에서 계속 중계되는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는 '노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을 구분시켜 단순한 볼거리를 제공할 뿐이다. 공동체 의식이 파괴되고 개인화되는 현상은 어른이나 아이들의 놀이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통놀이 새롭게 변형시킨 책 많아

하지만 뜻있는 이들에 의해 우리 민속놀이의 세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들은 그나마 잊혀지고 있는 우리의 놀이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파수꾼 역할을 해주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레크리에이션을 소개한 책들보다는 그 종수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개인화된 사회보다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소개서들은 과거를 잊고 사는 현대인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도 충분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전통놀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시켜 소개하고 있는 책으로는 「아이들 민속놀이 백가지」(김종만, 우리교육), 「북 치고, 장구치고」(진옥섭 엮음, 동녘), 「가슴 펴고 어깨 걸고」(놀이연구회 엮음, 우리교육), 「신나는 놀이 즐거운 학교」(우리교육편집부, 우리교육), 「어린이 세시기」(윤성중, 날개), 「노래 하나 햇볕 하나」(전교조문화국 엮음, 이웃), 「창조하는 공동체 놀이」(연성수 엮음, 아침) 등이 있다.

이 책들에 소개된 놀이가 전적으로 민속놀이인 아니다. 민속놀이란 놀이 주체들 틈에서 끊임없이 형편에 맞게 변화, 발전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변화된 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놀이의 특징은 우선 넓은 공간이 필요치 않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점. 보통 3~4명의 아이들이 들어설 공간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구들, 예를 들어 작대기, 종이, 돌맹이, 흙이나 모래, 실, 초, 그리고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몇명의 인원들만 있으면 충분히 그 놀이를 할 수 있다는

민속놀이의 세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들은 잊혀지고 있는 우리의

놀이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레크리에이션을 소개한 책들보다는 그

종수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개인화된 사회보다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민속놀이 소개서들은 과거를

잊고 사는 현대인의 향수를 불러일으키

기에도 충분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것이다.

김종만이 쓴 「아이들 민속놀이 백가지」(우리교육)는 아이들이 마당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를 중심으로 그 방법을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소개된 놀이를 보면 팽이치기, 제기차기, 줄넘기, 고무줄 놀이를 비롯해서 그네뛰기, 발차치기, 얼음축구, 구슬치기, 딱지치기, 수건돌리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왕대포, 강통차기, 까막잡기 등 백가지의 놀이를 참가인원, 놀이방법 등을 세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소개된 놀이의 대부분이 2·30대나 그 이상의 성인이 즐겨 놀았던 것으로 요즘의 아이들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딱지치기의 경우는 딱지를 만드는 방법도 세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이들의 창작연습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모든 놀이가 아이들에게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정적인 놀이를 즐기는 요즘 아이들에게 유효한 놀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슴 펴고 어깨 걸고」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놀이를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씌어진 놀이책. 월별로 주제를 가지고 전래놀이, 심성놀이, 차연놀이, 노래와 율동, 대동놀이 등을 묶어놓았다. 각각의 놀이는 다시 놀이의 의의, 준비물, 놀이 인원, 놀이 방법을 학년별로 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북치고, 장구치고」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동체놀이를 중심으로 엮었다. 인간관계 훈련이나 공동체놀이를 통해 서로의 정을 돈독히 하는 놀이를 비롯해서 공동창작을 할 수 있는 과정까지를 난장타기, 유대강화, 공동체 역량 강화, 적극 활동, 새로운 준비기간 등으



전통놀이를 소개하는 책들이 서점에 나와 있다. 그림은 「아이들 민속놀이 백가지」 중 '두개비집 짓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

로 나누어 그에 적합한 놀이와 생활을 소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교가 경쟁과 지식의 장터 역할만 할 뿐이라면서 예민한 청소년들이 일(학습)과 놀이를 적절하게 조화해서 생활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엮은 이의 주장.

놀이는 새로운 생산위한 수단

전래되어 오는 놀이를 여과과정 없이 보여주고 있는 책으로는 「조선의 민속놀이」(민속학 연구실 엮음, 푸른숲), 「민속과 축제」(이강렬, 원방각), 「한국의 민속놀이」(심우성, 대광문화사), 「민속놀이 지도자료」(오강현 외, 삼일각) 등이 있다.

이 책들은 민중들의 놀이라는 것이 “재미 본위로 시간보내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생산을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민속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민속놀이」는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 잠시 쉬참으로 노는 간편한 놀이부터 수백 수천 명의 많은 인원이 한 데 어울리는 놀이까지”를 망라해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 이론적 틀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소개된 놀이는 모두 29종으로 고무, 공기놀이, 그네뛰기, 그림자놀이, 널뛰기, 땅재먹기, 비석차기, 술래잡기, 윷놀이, 자치기, 제기차기, 가마싸움, 강강술래, 꼬싸움, 관동놀이, 기세배, 뚝다리밟기, 달맞이, 달집태우기, 동채싸움, 쇠머리대기, 편싸움, 햇볕놀이, 씨름, 연날리기, 장치기, 줄다리기, 지신밟기 등이 그것이다. 윷놀이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옛 기록과 지금까지의 놀이에 대한 연구성과를 집약하면서 윷놀이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달리 불리는 윷노

래도 소개하고 있어 민속학 자료집으로서의 역할도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민속과 축제」는 놀이의 폭을 더 넓혀 살펴보고 있는데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민족이 축제를 대하는 태도 등을 분석하면서 굿과 무당, 농악, 꼭두각시놀음, 탈놀이, 등불놀이, 줄다리기, 부락제, 황해도도의 장연 인형극, 통천 가면극, 시절 윷놀이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의 전래민속도 볼 수 있어

이밖에 북한의 사회과학원 민속학 연구실이 쓴 「조선 민족 풍습」이 서광학술자료사에서 출판돼 북한에서의 전래 민속놀이에 대한 관점과 잔존 유무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은 북한에서 퍼낸 민속학 개론서로 민속놀이를 경기놀이, 겨루기놀이, 가무놀이, 어린이놀이로 나누어 일부 다루고 있다. 특이한 것은 겨루기놀이 중 쌍륙이라는 놀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주사위를 이용한 윷놀이의 일종으로 남한의 책에서는 아직 소개되지 않고 있는 것. 이밖에 삼삼이(길쌈놀이를 형상화한 가무놀이)와, 다리쌈놀이(다리를 서로 엇갈리게 마주보고 앉아 하나씩 빼는 놀이) 등도 소개할만한 민속놀이이다.

J.호이징하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모든 동물은 놀이의 시기를 갖는다”고 했다. 이는 물론 어린이에게나 어울리는 말이겠지만 확대해석해서 모든 사람이 놀이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볼 때 그 땅의 전통이나 민속을 얼마나 간직한 놀이를 하느냐는 문제는 단순히 지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물음이 될 것이다.

—이성수 기자